

제 133호 새 학기 다짐 3

지난 호에 이어 새 학기에 다짐해볼 만한 사항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신선함을 추구한다

어느 대학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 식탁에는 어떤 교수님께서 신입생 열 대여섯 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 신입생을 모든 교수님께 배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학생들이 일년에 한끼 식사라도 함께 하라고 대학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앉은 지도교수님의 말씀이 훤히 들려왔습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합니다. 부모님을 잊지 말아야해요.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부모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말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해요.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합니다.”

학생들은 묵묵히 밥을 먹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목에다 힘을 한껏 주어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대학 4년은 금방 가버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졸업할 날이 옵니다. 지금부터 실력을 꾸준히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필요한 일꾼이 되고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지요...”

교수님은 목소리는 흥분에 떨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교수님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은 멍할 뿐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다 지겨운 잔소리로 들렸겠지요. 학교 다니는 12년 동안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매일 들은 말을 대학에 와서 다시 교수님으로부터 듣자니 기운이 짝 빠져버릴 것입니다. 교수님이면 뭔가 다른 차원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며 막연한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버리겠지요. 그리고 대학인들 별 수 없구나하는 암담하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대학생에게 끈기만을 요구하는 도전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교수님과의 다음 만남은 배고플 때에나 기다려지겠지요.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이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나 준비해 보십시오. 같은 메시지라도 엉뚱한 각도에서 접근해보십시오. 학생은 신선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학생들의 머리를 탁 쳐주어야 합니다. 잔머리 굴리게 하는 얄은 말장난이 아니고 생각의 한계를 도전하는 깊은 말 한마디를 던져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적 도전을 해보십시오. 학생들은 지도교수님의 신선한 말씀이 기대 되어 다음 지도시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신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새시대 교수법> 129호를 참고하십시오.

© 조벽, 2001